

먼저 주님과 성모님께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손향옥(세실리아)
대구 파티마병원 자원봉사자

오랫동안 봉사했다는 이유로 수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호스피스라는 생소한 이름의 교육이 있다는 주보를 보고, 교구청에서 3일간 강의를 들은 지가 어느덧 햇수로 20년. 그동안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보내드리면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조그만 기쁨으로 봉사하다 보니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드릴까?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보고, 되도록 해소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발을 만지고부터는 발이 차갑고 보랏빛을 띠면 오래 사실 수 없다는 것과 보랏빛이 없어도 빠른 시일에 하느님계로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시도록 도와드리고, 그분들을 잊지 않도록 기도로 격려하고 먼 길을 떠나시면 도우미 선생님들에게 가실 때의 표정을 물어보고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면 잘 부르지는 못해도 나지막이 곁에서 불러드리고, 침상 곁을 지켜드리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50대 폐암 환자분은 자신의 처지를 일찌감치 아시고 유산정리를 말끔히 하시는 용단에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였고, 젊은 엄마는 8살 아들을 못내 잊을 수 없어 하였지만 봉사자에게 자신이 살지 못하는 내일을 기쁘고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주기를 오히려 부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녀오면 남편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었는데 남편도 유서를 써놓고 자신을 비우고 있는 모습에서 저도 마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은 주님 품으로 가야 하는 길을 고통이 짧기를 바라고, 그 고통이 빠르게 진정 되도록 도와드리면서, 언젠가 모르는 그 날까지 봉사하는 동안의 수고로움을 주님께 봉헌하고, 회원들 간의 친교도 각별히 유지하며 마치는 그 날까지 건강을 유지하게 노력합니다.

주님과 성모님께 봉헌하는 삶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성체 조배로 시작합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연수

제18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 서울성모병원, Sr.라정란